

엄마와 딸 같은 두 작가...우리들의 초상



전현숙 작 '가슴앓이'

동구 장동 예술공간 집, 전현숙&성혜림전 내달 27일까지 '내가, 우리가, 그림이 되다'

자신을 담은 인물을 위트넘치게 그려나가는 전현숙 작가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자신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성혜림 작가는 엄마와 딸처럼 25년의 나이 차이가 있다. 세대는 다르지만 두 작가의 작품 출발점은 모두 자신에서 비롯된다.

동구장동에 위치한 예술공간 집에서 내달 27일까지 '내가, 우리가, 그림이 되다'는 여성작가의 섬세한 시각으로 비춰낸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전시다.

스스로 "내 삶에서 나의 그림은 태어난다"라고 말하는 전현숙 작가는 자신을 담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간다.

이번 전시에는 현재 작가만의 특징적인 이미지가 시작되는 시점인 2008년 작품도 전시되어 그동안 작품의 변화과정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

2008년 작 '가슴앓이'는 피노키오의 모습을 한 아들에게 젖을 먹이며 명하니 먼 곳을 바라보는 표정의 여인이 그려졌

다. 엄마이자 한 여성으로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시작된 고민을 어떻게 이미지화시켜 나아갔는지 알 수 있다.

작가이자 여성으로 살아오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잠시 물러났던 나'와 단 한 번도 '사그라들지 않는 자아'는 그림 안에서 팽팽하게 공존한다. 원색의 화면은 화려하면서도 무미 건조한 듯 하고, 확연하게 형상이 드러나는 인물은 묘한 표정들로 채워진 듯하다.

비슷하게 살아가는 삶의 면면이었지만 저 깊은 곳에 자리한 채워지지 않은 욕망이나 힘겨움, 갈등, 버거움은 결코 무겁지 않게, 위트 넘치게 전현숙 작가만의 특별한 이미지로 관객들에게 말을 건넨다.

성혜림 작가는 어린시절 마냥 어른이 되고싶던 맘은 뒤로 물러난 채 어른이 되어 마주하게 된 세상의 부조리함, 불안함, 두려움을 더욱 크게 느껴가는 자신의 마음을 그려냈다. 천진난만한 표정의 아



성혜림 작 '치유'

이가 아닌 외면하는 시선, 고개를 돌린 우울함과 외로움 가득한 아이의 모습엔 작가가 사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대로 스며들어 있다. 이제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닌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헤쳐 나아가야 하는 행복과 불안이 공존하는 어른들의 마음이 그려져 있다.

예술공간 집 문화예 대표는 "전현숙 작가가 자전적 모습으로 자신을 직접적

로 드러냈다면, 성혜림 작가는 아이라는 존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이야기한다"면서 "두 작가의 작품으로 내 안의 나를 돌아보며 자신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2-233-3342.

/이연수 기자

한없이 비우고 한없이 품어내다

롯데갤러리, 증견 도예가 김기현 달항아리전 23일~내달 8일 백자 달항아리 20여점 선봬

롯데갤러리는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제고하는 의미로 지역 증견도예가의 초대 전시를 진행한다. 초대 작가는 도예가 김기현씨로 김 작가는 오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백자 달항아리 작업 중심의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30년 넘게 도예 작업을 지속하며 주로 분청자 위주의 대형 사발 작업을 진행했던 작가는 7년 전부터 달항아리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백자 달항아리는 원형에 가까운 둥근 기형과 눈처럼 흰 유약이 마치 보름달을 연상시킨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본래 장이나 젓갈, 기름 등을 담아두기 위한 도구로서 만들어졌다가 점차 사대부의 감상 대상이 됐다.

높이 한자 반, 약 45센티미터 이상 되는 달항아리는 당대의 수동 물레로는 성형이 불가능했다. 현명했던 조선의 도공들은 두 개의 큰 사발을 만들어 위아래를

이어 붙이는 방법으로 자기를 제작했고, 때문에 어느 달항아리를 보아도 중앙에 위아래를 이어 붙인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이러한 제작 방식 때문에 완벽한 조형 미보다는 어딘가 일그러진 부정형의 둥



김기현 작가

근면과 여유로운 미감이 특징이다.

김기현 작가는 전통방식 그대로 두 개의 큰 사발을 이어 붙이는 성형방법을 고집하며 장작가마 소성을 거쳐 달항아리를 제작한다.

작가는 작가노트에서 "달항아리를 보며 많은 분들이 커다란 복과 건강한 기운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연수 기자



백자 달항아리

한·일 장애인 비장애인 문화예술한마당

'2018다므기전' 29일부터 광주 하정웅미술관

한국과 일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 예술인들이 함께 어울려 조화로운 예술교류와 문화로 소통하는 예술한마당 '2018 다므기전' 이 오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광주 하정웅미술관에서 열린다.

2014년 첫 전시를 시작으로 올해로 다섯번째인 이번 전시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미술작품 120여점과 함께 한·일 전통악기인 샤미센, 고토, 사물놀이 등

의 공연 행사도 열린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어린이 행사인 '꿈나무 빨래'는 광주 은혜학교 학생들과 광주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제작한 티셔츠를 빨래 형식으로 걸어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 기간 하정웅미술관 야외 잔디광장에 250여점이 걸린다.

전시를 주최하는 국제장애인비장애인 문화예술교류협회 정한울 추진위원장은

"5년째 행사를 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다는 데 성과와 보람을 느낀다"며 "시간이 갈수록 어린 세대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손 잡고 가자는 개념으로 의식이 바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므기'는 '더불어', '함께'라는 뜻의 우리말로 다므기 행사는 각 지역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신명난 문화예술 한마당을 연출하며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출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오픈식은 29일 오후 4시30분.

/이연수 기자

문체부, 공간문화대상 내달 27일까지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국건축가협회는 7월 27일까지 2018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13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일상의 장소를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

력한 이들과 그 장소에 준다.

시상은 대상(대통령상 1작품), 최우수상(국무총리상 1작품), 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4작품)으로 나눠 이뤄진다.

우수상은 거리마당(거리·광장), 누리쉼터(주민쉼터) 두레나눔(공동

체 활성화), 우리사랑(문화·역사 고취) 등 4개 분야에서 시상한다.

서류·현장심사, 최종평가를 거쳐 선정된 수상자(단체)에게는 상금이 수여된다.

올해 9월 결과 발표 후 그다음달 열리는 2018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기간에 시상식과 작품 전시가 함께 진행된다.

/이연수 기자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